

2018년 5월 23일

emerics@kiep.go.kr

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 이후 국제유가의 향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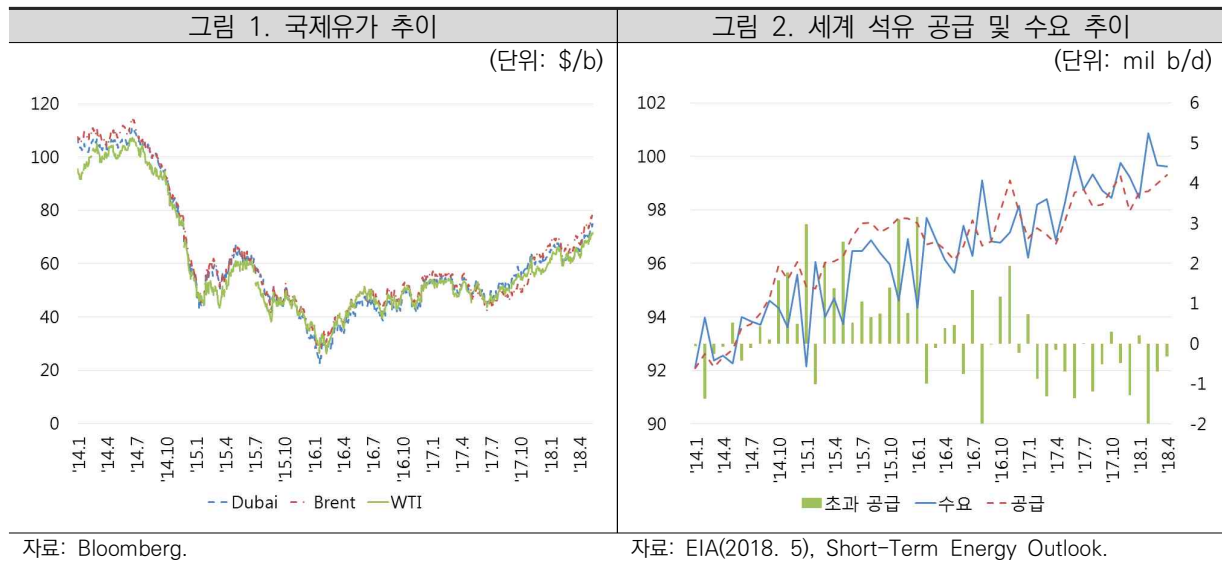


©REUTERS

-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(JCPOA: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)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.
-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는 이란과 거래해 온 기업들이 관련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제재복원 유예기간(wind-down period)을 90일과 180일 기한으로 정하였음.
 - 9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8월 6일 이후에 이란 정부의 달러, 금 및 귀금속 거래,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제재가 복원되며, 180일이 지난 11월 5일부터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가 부과됨.
 - 특히 180일 이후 적용되는 원유 수입 규모 감축, 에너지 상품 운반과 관련된 보험 및 특수 금융메시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.¹
- 미국의 핵합의 탈퇴 선언 이후 국제유가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제재복원에 따른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상승 폭은 둔화되었음.
- 5월 둘째 주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배럴 당 73.6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(4.7%, 전주 대비)을 보였음.
-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,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원유 초과 공급량이 감소하는 가운데, 이란의 원유 수출 차질로 원유 공급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.²
 -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2017년 1월부터 원유 감산 체제에 들어갔으며, 2018년 4월 감산 이행률은 172%로 높게 나타났음.
 -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와 함께 중국의 4월 원유 수입량이 일일 9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원유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 - 하지만 이란 제재 재부과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자 5월 셋째 주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 상승률은 1.5%로 둔화되었음.

1) 대표적인 예가 SWIFT(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)로,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송수신 플랫폼,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국제금융거래는 SWIF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.

2) 이란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13.1%를 차지하였음.



-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유 생산량 증가 및 달러 가치 상승 등의 변수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
-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미국의 핵합의 탈퇴보다는 선진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,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차질에 의한 원유 초과 공급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미국의 핵합의 탈퇴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2018년 11월 제재가 실질적으로 복원되면 이란 원유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.³⁾
 -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도 유럽 국가들은 합의를 유지하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 및 선박 보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 원유 수입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.
 - 미국은 180일의 유예기간 이후 원유 수입 감축 예외국 선정 시 유예기간의 원유 수입 감축 노력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나 이에 따른 원유 수입국의 수입 감소분, 미국의 제재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큰 상황임.
 - 또한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확대, 2018년 12월로 예정된 원유 감산 조치 종결, 달러 강세 등의 유가 하방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 **EMERiCs**

참고자료

Bloomberg, EIA, IEA, U.S. Department of Treasury 등

(작성: 손성현 전문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

3) 2012년 제재가 부과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량은 각각 일일 약 110만 배럴, 120만 배럴로 감소하였으며, 제재가 완화된 이후 생산 및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2018년 4월 기준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은 각각 일일 382만 배럴, 240만 배럴을 기록함.